



즉시 배포용: 2018 년 5 월 16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맨해튼 지방 검사와의 합동 수사를 통해 주요 건설회사 소유주들을 체포하고 기소했다고 발표

중 절도죄와 180 만 달러의 노동자 임금 사기 계획 혐의로 기소된 파크사이드 컨스트럭션(Parkside Construction), 어피니티 휴먼 리소시스(Affinity Human Resources), 기타 회사의 간부들

또한 700 만 달러의 보험료를 횡령한 뉴욕주 보금 기금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착취 임금 180 만 달러의 행방을 추적하여 뉴욕 최대 건설회사 중 한 곳의 소유주들을 체포하여 기소한 뉴욕주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DOL), 맨해튼 지방 검사, 수사부(Department of Investigation) 간의 합동 수사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 수사의 결과로 6 명이 체포되어 몇 건의 중 절도죄, 사기 계획, 보험 사기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인 파크사이드 컨스트럭션(Parkside Construction)의 공동 소유주이자 이 기업의 분신이나 마찬가지로인 Francesco 씨 및 Salvatore Pugliese 씨와 더불어 파크사이드(Parkside)의 다른 대리인들인 Yenny Duarte 경리 부장, James Lyons 공사 감독, Michael DiMaggio 회계사 등은 불법 활동을 숨기기 위해 전문적인 고용 기관인 어피니티 휴먼 리소시스 유한책임회사(Affinity Human Resources, LLC)를 이용했습니다. 어피니티(Affinity)의 Jerry Hamling 최고 경영자 역시 체포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오늘 추후 뉴욕 카운티의 대법원(Supreme Court)에서 기소 인정 여부 절차를 밟게 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법을 어겨 가면서, 고된 하루 일을 마친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우리는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우리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위대한 주의 전 지역에서 검사들과 계속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노동부(Department of Labor)의 Roberta Reardon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크사이드 컨스트럭션(Parkside Construction)이 저지른 사기성 비즈니스 관행은 직원들에게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전체 비즈니스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건의 처리에 협력하고 노력을 기울여 주신 Cyrus Vance 지방 검사님과 그의 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기 사건을 감지한 헌신적인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직원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근면한 뉴욕 주민들의 임금을 훔치려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보내도록 합시다. 당신들은 법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Cyrus R. Vance, Jr. 맨해튼 지방 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맨해튼의 사치스러운 건축 경기 속에서, 때로는 건축 공사장의 발판 뒤에 있는 인간을 간과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건설 노동자들은 도시에서 가장 위험한 일 중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천 피트 상공의 공중에서 일하거나 지표면 20 피트 아래에서 일하거나 상관없이, 그들은 당연히 자신의 일에 대한 공정한 임금 전부를 받아야 합니다. 저희 검찰청은 모든 산업 분야의 직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임금 착취의 퇴치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오늘 기소된 사람들과 같은 부도덕한 고용주들이 직원을 속이고 임금을 착취하는 새롭고 다양한 방법을 고안하고 있는 건설업에서는 특히 일반적입니다. Cuomo 주지사님 및 현지의 우리 파트너들과의 작업 환경의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의 합동 활동을 시작한 이후, 저희 검찰청은 노동자들이 착취당한 수십만 달러의 임금을 돌려 주었습니다. 저는 이 중요한 문제에 헌신해 주신 파트너들께 감사드립니다.”

가장 최근에 수행한 체포는 2011년 취임 이후 착취 임금 2억 5,840만 달러를 찾아내서 노동자 215,335명에게 돌려주는 등 사기성 비즈니스 관행을 저지하기 위한 Cuomo 주지사의 적극적인 활동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주 노동부(State Department of Labor)는 나중에 형사 고발을 하게 된 검사들에게 죄질이 나쁜 임금 착취 사건들을 맡겼습니다. 이렇게 부여된 사건들은 여러 관할 지역의 수사를 통해 밝혀진 중범죄 행위 또는 기소되지 않은 계약들을 기소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눈에 띄는 사건인, 이 주요 고급 건축물 개발업체 및 관련 회사들에 대한 기습 체포는 법 집행 기관 파트너들과 노동부(DOL)의 지속적인 합동 수사의 결과입니다. 이 형사 사건으로 작년의 대규모 노동부(DOL) 수사의 뒤를 이어, 파크사이드(Parkside) 회사들과 어피니티(Affinity)가 저지른 만성적인 저임금 지불 및 기타 노동법 위반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몇 년에 걸쳐 희생되어 왔습니다.

파크사이드(Parkside)는 수백 명의 저임금 이민 노동자들이 힘들게 번 임금 수백만 달러를 착취하기 위한 계획을 오래 유지했습니다. 막대한 임금 착취에 대한 기소 사항 이외에도 이 형사 수사는 또한 광범위한 보험 사기도 적발했습니다. 파크사이드(Parkside) 및 관련 회사들은 파렴치하고 사기적인 관행을 저지르기 위해 어피니티(Affinity)라는 이름의 전문적인 고용 기관을 이용했습니다. 이 회사들은 실제 임금 수준을 시세보다 낮게 정하기 위해 해당 회사의 기록을 조작함으로써 주정부를 속여 수천만 달러의 보험료를 횡령했습니다.

노동부(DOL)는 뉴욕주의 임금 착취 사건을 수사할 책임이 있습니다. 2017년 한 해에만 노동부(DOL)는 노동자 36,446 명에게 35,370,000 달러를 돌려주었습니다. 종종 노동자를 위한 임금 회수는 더 많은 행정 조치 없이 고용주가 미지급된 임금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는 규정 준수 회의를 통해 달성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임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급을 피하기 위해 자산을 숨기려고 한 치명적인 사건 또는 사건들의 경우, 노동부는 사건을 기소하기 위해 지방 검사에게 의지합니다.

뉴욕주에서 압도적인 기업의 대부분이 이 법을 따르지만 악덕 업자들이 임금을 훔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 몇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팁만 지급,
- 일한 시간을 계산할 때 최저 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일에 대한 일당 지급,
- (iii) 주당 기본 근무 시간인 40 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시간외 근무 수당 미지급,
- (iv) 동일한 날에 배정된 작업 사이의 이동 시간에 대해 임금 미지급,
- 최종 임금 지급 보류,
- “훈련” 시간에 대한 임금 미지급,
- 필수 유니폼 및 장비 대금을 직원에게 청구.

임금 착취 신고를 원하시는 분은 1-888-4-NYSDOL 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